

조선 전기 수전(水戰)의 문화적 의미 변화와 수전희(水戰戲) 소재 한시 양상 연구

- 한양의 수군 훈련 행사를 중심으로 *

강수진**

<차례>

1. 들어가며
2. 수전(水戰)에서 수전희(水戰戲)로의 변천
- 정기 군사 훈련에서 유희적 행사로 변화
3. 수전희(水戰戲) 소재 한시의 특징
- 수전희 시행 방법 묘사 및 태평성대 찬양
4.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 한양에서 시행된 수군의 군사 훈련인 수전(水戰)의 시행 방식과 변천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전을 소재로 창작된 시를 분석하여 조선 전기 한양 문화의 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전은 국왕이 주관하는 군사 훈련의 하나로, 왜구 침입에 대비하여 시행되었다. 국왕이 수군 주둔지로 행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漕船)이 한강에 정박하는 시기를 기다려 수군을 훈련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상 수전은 주로 여름에 시행되었다.

초기의 수전은 가상의 적을 만들고 이를 격파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세조 이후에 모의 전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수전은 한강에서 열린다는 점, 그리고 시행 방식의 특성상 모의 전투를 통해 승패를 나눈다는 점에서 다른 군사 훈련보다 유희성이 높았다. 이는 조선시대 관람 문화에서의 유희성으로, 관람자 입장에서 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145)

**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강사

전은 모의 전투를 하여 승패를 가르다는 점에서 다른 군사 훈련보다 구경거리가 많았을 것이다. 성종 대 이후부터 수전을 마친 뒤 왕은 연회를 열어 어가를 수행한 문·무신들에게 글을 짓게 하고, 그 글에 등수를 매겨 포상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성종 대부터 수전은 군사 훈련보다 유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전의 특성에 주목하여 수전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수전을 소재로 창작된 시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 한양의 놀이문화의 단면을 밝히고자 하였다.

수전을 소재로 창작된 한시의 경우, 대체로 군사 훈련으로 시행했던 모의 전투를 묘사하고, 당시 집권했던 왕의 치세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호종 신들이 수전을 관람한 뒤에 어명으로 제시된 시제에 맞춰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이 수전이 끝난 뒤에 열린 연회에서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전이 임금과 호종신들에게는 하나의 놀이로 인식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전기의 한양 거주민들에게는 국가적 행사를 관람하는 것이 유희거리였으며, 수전은 주기적으로 시행된 국가적 행사 중 하나였다. 따라서 수전을 소재로 창작된 시는, 당시 국왕과 관료 문인들을 비롯하여 한양 거주민들의 놀이 문화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수전(水戰), 조선 전기, 한양 문화, 군사 훈련, 수전희(水戰戲)

1. 들어가며

조선 초기에 한양으로 천도한 이래 외침으로부터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도성을 축조하고 군사를 훈련하는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수전(水戰) 또한 수도 방어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었던 군사 훈련으로, 고려 말부터 빈번하게 침입해왔던 왜구에 대한 대비책에서 시작되었다. 고려 말 왜구는 서해안 유역까지 침입해 왔으며, 한양의 위치상 왜구들이 서해안에서 한강으로 거슬러 온다면 수도 방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선 초

기에는 경기도에 수군을 두고 한강 하구와 강화도에 군사들을 배치하여 왜구의 침입을 막았으며, 세종 대부터 한강에서 수군 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수전(水戰)이라고 지칭하였다.

수전은 세조 대 이후 훈련 방식과 규모가 변화하면서 그 위상과 성격도 달라졌다. 성종 대 이후로 국가가 내외적으로 안정되면서 국왕이 수전을 관람한 뒤 연회를 열고 수행한 문무 대신들에게 시문을 창작하게 하였다. 이 시기부터 한강에서 시행된 수전은 일종의 유희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조선 전기에 한강에서 시행된 수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과 수전을 소재로 창작된 작품을 분석하여, 수전의 변천 과정과 그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조선 전기에 한강에서 시행된 수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전은 국왕이 주관하는 행사였으며, 한강에서 시행한 수상 군사 훈련이었던 점에서 당시의 한양 놀이문화의 일종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도시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 전기에는 국왕이나 사신의 행차와 같은 국가적 행사가 열리면 한양의 거주민들이 모여 들며 이를 구경하였으며, 이는 곧 당시의 놀이문화가 되었다.¹⁾ 현존하는 자료로는 민간 차원에서 수전을 어떠한 식으로 향유하였는지 짐작할 수는 없으나, 본고에서는 수전을 조선 전기 한양 문화의 하나로 파악하여 그 시행 방식과

1) 여기에서의 놀이란 관람으로서의 놀이를 의미한다. 조선시대 한양의 놀이문화 중에 관람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도성의 사람들이 국가적인 행사를 구경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군사 훈련이나 농사를 시찰하기 위한 왕의 행차나, 사신의 행차, 왕의 능행 등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면 도성 사람들이 나와서 이를 구경하였는데, 이러한 구경이 당시 한양의 놀이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7월 21일 기사에 기록된 부녀들의 구경 놀이를 금지할 것을 청하는 신개의 상소 및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권2의 세조 때 전경법(轉經法) 행하는 것을 보려고 유가의 부녀자들이 몰밀듯 모여들었다는 내용, 권5의 사신을 맞이하는 국가적 행사에 다수의 남녀가 모여 들어서 구경했다는 내용 등을 통해 당시의 이러한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강수진, 『조선 초기 한양의 문화적 형상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8, 175~185쪽 참조.)

놀이로 정착되었던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한양 문화의 한 측면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에 한강에서 시행된 수군 훈련을 수전희(水戰戲)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는 성종 대에 창작된 이육(李陸)의 시 〈서강에서 수전희를 보다[西江觀水戰戲]〉에서 착안한 것으로, 이육은 시 제목과 시의 구절에서 당시의 수군 훈련을 ‘수전희(水戰戲)’라고 지칭하였다. 본고에서는 각 도의 해안에서 시행된 수군 훈련 및 수상에서의 전투와 조선 전기에 한강에서 시행되었던 수군 훈련을 구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수전(水戰)에서 수전희(水戰戲)로의 변천

-정기 군사 훈련에서 유희적 행사로 변화

1) 강무(講武)의 일환으로 시행

수전희는 조선 초기부터 시행해왔던 강무제에서 비롯되었다. 강무제는 국왕의 교열하에 군사를 훈련하는 제도로, 건국 초 북방과 남방에서의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북쪽으로는 여진족이, 해안가로는 왜구들이 침입하였는데, 태조 때부터 이러한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군사를 훈련하였다. 도성 또한 외침에 대비하여 여러 방비 대책을 세웠다. 도성을 축조하고 정예병을 모아 중앙군으로 편제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군사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 군사 훈련은 태종~세종 때를 거치면서 확립되었으며, 태종 집권 후 군사 훈련의 주도권이 재상에서 국왕으로 옮겨가면서 조선 전기의 국왕들은 습사(習射), 열무(閱武), 강무(講武) 등을 직접 주관하였다.²⁾

강무제는 대체로 기병과 같은 육군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세종 대에

들어서면서 수군 훈련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는 수군 훈련 자체가 이 시기에 처음 시행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군 훈련이 시행되었으며, 조선에 들어와서 왜구로부터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경기도에 수군을 두었는데, 이들은 한강 하구와 강화도에 주둔하였다. 세종 집권 말기부터 강무제를 수군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고, 국왕이 수군의 주둔지까지 행차할 수 없었기에 한강에서 수군을 훈련하였던 것이다. 한강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수전희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강 가운데서 수전(水戰)을 연습하라고 명령하였다. 지중추원사 이천(李戣) 등이 삼군(三軍)으로 거느리되, 한 군선마다 사졸 30여 인씩 싣고, 또 배 4척으로 허수아비 사람[芻人]을 태워 적군을 삼아 가지고 상거(相距) 20보쯤에서 각(角)을 불고 북을 울리면서 주화·질려포(走火蒺藜砲)를 쏘면서 전투하는 모양을 하는데, 세자가 대군과 함께 회우정 서쪽 산봉우리에 나가서 구경하였다.³⁾

위는 『세종실록』 세종 27년(1445) 3월 2일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 시행되었던 수전희는 그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00명 남짓한 수의 군사가 훈련에 동원되었으며, 7척의 배를 사용하였다. 그 훈련 방식을 살펴보면, 약 9~10M의 거리를 두고 군사들의 배와 가상으로 만든 적군의 배를 띄우고, 군사들이 적군의 배에 있는

2) 조선 전기의 강무제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서울 2천년사 14 -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할』(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을 참조하였음.

3) 『세종실록』 권 107, 세종 27년(1445) 3월 2일 기사. “命習水戰于江中. 知中樞院事李戣等分將三軍, 每軍船載士卒三十餘人, 又以四船載芻人爲敵, 相距二十步許, 吹角鳴鼓, 放走火蒺藜砲, 爲相戰狀. 世子與大君出喜雨亭西峯觀之.” 본고에서 인용한 『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등의 원문과 번역은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에서 인용하였으며, 번역문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병기된 한자어를 일부 삭제하였음.

허수아비를 포로 명중하는 방식으로 훈련하였다. 즉, 당시의 수전회는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 포를 쏘아 왜구의 배를 명중시키는 것을 연습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위의 기사에는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이를 시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⁴⁾ 같은 해 5월부터 문종이 대리청정을 시작한 것을 고려했을 때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어 직접 훈련을 볼 수 없었으므로 문종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문종이 수전회를 시찰한 장소는 희우정으로, 이를 통해 양화도 인근에서 수전회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대 이후 단종 대에 이르러서 수전회가 재개되었는데,⁵⁾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서교(西郊)에서 농사를 구경하고, 길가의 농민에게 모두 술과 밥을 내려 주었다. 희우정에 이르러 수전(水戰)을 연습하는 것을 보고, 또 시위 군사로 하여금 수박희(手搏戲)를 하게 하고 상을 차등 있게 주었다.⁶⁾

위는 『단종실록』 단종 3년(1455) 6월 19일 기사이다. 세종 대에 처음 시행된 수전회는 3월에 열렸는데, 단종 때에는 6월에 시행되었다. 이처럼 단종 대에 들어서면서 수전회를 행하는 시기가 바뀌었는데, 이는 수전회에 사용하는 배를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도성 근교에서 군사 훈련을 하기 위해 변방에 있는 군함을 한강까지 끌어올 수 없었으므로 주로 조선(漕船)을

4) 위에서 인용한 세종 27년 3월 2일의 기사의 번역문에서는 ‘觀’을 “구경하였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자(문종)가 세종 대신 수전을 시찰하러 나간 것이며, 조선 시대에 국왕의 주관하에 강무를 시행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번역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5) 『한국군사사 6 - 조선 전기 II』(육군군사연구소 편, 경인문화사, 2012)에 따르면 선왕의 장례 등으로 문종, 단종 때에 강무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기록을 통해 수군 훈련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단종실록』 권 14, 단종 3년(1455) 6월 19일 기사, “觀稼于西郊, 路邊農人, 皆賜酒飯. 至喜雨亭, 觀習水戰, 又令侍衛軍士手搏, 賞之有差.”

수전희에 사용하였다.⁷⁾ 조선이 한강에 도착했을 때 수전희를 열 수 있었으므로 대체로 여름에 수전희를 시행하였던 것이다.⁸⁾ 또한 위의 기록에 따르면 관가(觀稼)와 수전희를 같은 날에 시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국왕의 행차에 대규모의 군사들이 동원되었으며, 도성 내외의 백성들이 몰려들어 국왕의 행차를 구경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왕이 한 번 행차할 때마다 도성 내외가 혼잡하였으므로 편의상 하루에 관가와 수전희를 시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전희는 세조 대에 들어서서 그 규모와 시행 방식이 변화하였는데, 다음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경기 관찰사 최한경(崔漢卿)에게 유시하기를, “도내의 만호(萬戶) 2인으로 하여금 제포(諸浦)의 대선(大船) 2척에 기군(騎軍) 각각 80인을, 중선(中船) 4척에 기군 각각 50인을, 소선(小船) 6척에 기군 각각 30인을 거느리게 함과 아울러, 수전(水戰)할 기구(具)를 가지고 이달 26일에 양화도에 이르러서 정박하게 하라.” 하였다.⁹⁾

㉡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희우정에 거둥하여 수전(水戰)을 구경하니, 효령대군 이염(李琰)·영의정 신숙주·좌의정 구치관·우의정 황수신·판한성부사 이석형·호조 판서 노사신·대사헌 양성지·이조 참판 강희맹과 승지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명하여 병조 판서 김질을 좌상 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서원군 한계미를 우상 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아, 경기 병선(京畿兵船)을 나누어 가

7)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1510) 5월 20일 기사에 “水戰, 祖宗朝故事, 必待外方漕船上江時爲之.”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중종실록』 권 82, 중종 31년(1536) 7월 15일 기사에 “傳于政院曰: “凡爲水戰, 例於四五月爲之者, 以春等漕船上來後, 爲之故也. 今年夏, 已不爲矣.”라고 기록되어 있다.

9) 『세조실록』 권 36, 세조 11년(1465) 7월 6일 기사, “諭京畿觀察使崔漢卿曰: “令道內萬戶二人, 領諸浦大船二, 騎軍各八十, 中船四, 騎軍各五十, 小船六, 騎軍各三十, 并持水戰之具, 以本月二十六日, 到泊楊花渡.”

지고 상하로 서로 갈마들어 수전을 연습하게 하니, 배의 빠르기가 나는 것과 같고 북을 치는 소리가 서로 합하여져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긴 자가 개가하고 돌아오니, 임금(軍容)이 정제하였음을 기뻐하여 특별히 신속 주에게 어의 1령(領)을 내려 주었다. 어서(御書)로 병조에 보이기를,

“오늘 수전을 구경하니, 모든 대신이 방법을 아는 소이다. 내 일호(一毫)도 힘쓴 곳이 없는데 정비하였다 이를 만하고, 당당하고 정정하며, 숨었다 나타났 다 하는 것이 기병과 정병을 이룰 만하니, 다시 열병(閱兵)할 필요가 없다. 각각 집으로 돌아감이 옳으나, 만족하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니, 더욱 요긴한 기미 [要機]를 생각하여 나의 급한 것으로 함이 마땅하여, 그렇지 못하면 잘못이다.” (하략)¹⁰⁾

㉔는 『세조실록』 세조 11년(1465) 7월 6일 기사로, 이를 통해 당시 시행되었던 수전회의 준비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세조는 이전에 시행된 수전 회의와는 달리 수군이 사용하는 군함을 동원하여 수전회를 시행하였다. 또한 수전에 동원되는 배의 크기를 대·중·소로 나누고 각각의 배에 탈 기병의 수를 정하였다. 당시 동원되었던 군사는 약 640인으로, 세종 대의 수전회에 비해 대략 6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세조는 이전의 수전회의와는 달리 군함을 한강까지 이송하고 수전회에 동원되는 군사의 수를 증원하는 등 그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훈련 방식도 바꾸었는데 이는 ㉕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㉕는 『세조실록』 세조 11년(1465) 8월 2일 기사로, ㉔와 ㉕ 기사의 날짜를 통해 약 한 달 동안 수전회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㉕ 기록을

10) 『세조실록』 권36, 세조 11년(1465) 8월 2일 기사, “上與中宮幸喜雨亭, 觀水戰. 孝寧大君補·臨瀛大君瑬·永膺大君琰·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判漢城府事李石亨·戶曹判書盧思愼·大司憲梁誠之·吏曹參判姜希孟及承旨等隨駕. 命兵曹判書金碩爲左廂大將, 西原君 韓繼美爲右廂大將, 分將京畿兵船, 迭相上下, 習水戰, 船疾如飛, 鼓譟相合, 聲動天地, 勝者凱歌而還, 上喜軍容整齊, 特賜叔舟御衣一領. 御書, 示兵曹曰: ‘今日觀水戰, 皆大臣知兵之以也. 予無一毫着力處, 可謂既整既備, 既堂堂, 既正正, 既隱現, 既奇正者矣, 不必更閱. 可各還家, 不可謂足, 益思要機, 宜與我急有爲, 不然則過矣.’”

통해 당시 훈련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세종 대의 수전희는 가상의 왜적을 만들고 포를 쏘아 이를 명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목적은 왜구가 국경을 침입하였을 때 왜구의 배를 포로 명중하는 것을 연습하는 데 있었다. 반면에 세조는 수전희에 동원된 군사를 둘로 나누어서 모의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수전희를 시행하였다. 이는 왜구가 침입하였을 때 맞붙어서 싸우는 상황을 만들어 훈련을 시행했던 것으로, 세종 대의 수전희와 비교하면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식이었다.

세조 대에 들어서서 훈련 방식이 바뀐 것은 세조가 실질적인 군사훈련의례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세조 대 이전의 군사 훈련은 세종 때 편찬된 진법서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세조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모의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군사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훈련 방식은 세조 9년(1463년) 백사정에서 행해진 습전에서부터 도입되었다. 세조는 군사 훈련 방식을 바꾸고, 모의 전투에서 이긴 편에는 포상을 내림으로써 금군 및 무장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왕의 권위를 상벌을 통해 직접적으로 형상화하였다.¹¹⁾ 세조는 이러한 훈련 방식을 수전희에도 적용하여 실제로 전투에 사용되는 전함을 동원하여 모의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수전희를 행한 것이다.

당시 수전희에는 왕비가 동석하였으며, 주요 대신들이 동원되어 세조와 함께 수전을 관람하였다. 수전희를 행한 시기도 주목해야 하는데 농사철이 아니라 가을에 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세조 대에는 수전의 규모 및 훈련 방식을 비롯하여 동원되는 인원, 훈련 시기가 이전과 비교하여 대폭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수전희의 위상이 이전 시기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전희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당시 세조의 통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세조는 집권 시에 군정(軍政)을 통치 정책으로 내세웠

11) 세조 대의 군사 훈련 방식은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와 병학」(허대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233~240쪽.)을 참조하였음.

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차지하였으므로 집권 시기에 내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세조 때에는 실제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무를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이 수전회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2) 군사 훈련에서 수전회(水戰戲)로 변화

성종 대에 들어서면서 수전회는 또 변화하게 되는데, 성종은 세종~세조 대의 방식을 수용하여 수전회를 시행하였다.

㉑ (전략) 지사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오는 20일의 수전은 이미 배를 좌우로 나누었는데, 또 가상 왜선을 만들어 교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곧 영사(領事)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전에 수전할 때에도 가상 왜선 3, 4척을 만들었으니, 이극배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고,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옛날부터 수전할 때에는 또한 가상 왜선을 만들고 허수아비를 설치하였으니, 지금도 한명회 등이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¹²⁾

㉒ 양화도 북쪽 언덕에는 희우정이 있는데, 효령대군의 집이었다가 나중에 월산대군의 소유가 되었다. 성종이 해마다 농형(農形)을 살필 때와 세곡을 실어 나르는 배를 모아 수전(水戰)을 익힐 때면 친히 임행하였는데, 망원정이라 이름을 바꾸었다. 어제(御製) 시 몇 수가 있었는데, 문명 있는 조신에게 명하여 모두 차운하게 하여 판(板)을 둘러 정자 위에 걸어두었는데, 대군이 죽은 뒤로는 성종이 정자에 가지 않았으며, 제천정에 자주 행차했으나 정자가 좁은 까닭으로

12) 『성종실록』 권68, 성종 7년(1476) 6월 17일 기사, “知事李克培啓曰: ‘來二十日水戰, 已分左右船, 且假作倭船以交戰 何如?’ 上曰: ‘當如所啓.’ 仍謂領事曰: ‘何如?’ 韓明澮啓曰: ‘前日水戰時, 亦假作倭船三四艘, 克培之言是也.’ 金國光啓曰: ‘自古水戰, 則作倭船, 設芻人, 今亦如明澮等所啓何如?’ 上曰: ‘可.’”

개영(改營)하게 하였다.¹³⁾

위의 ㉔와 ㉕ 기록을 통해 성종 대 이후로 시행되었던 수전희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㉔는 『성종실록』 성종 7년(1476) 6월 17일 기사로, 성종이 한명회, 이극배 등과 함께 수전희 시행 방식을 의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위 기사에 따르면, 당시의 수전희는 세종과 세조 대에 시행되었던 방식을 모두 수용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즉, 가상의 왜선을 격파하는 방식과 군대를 2개의 편으로 나누어 모의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다만, 위의 기사에서 “이미 배를 좌우로 나누었다[已分左右船]”라는 구절을 통해 세조 대의 시행 방식을 우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조 대의 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이전의 방식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전희를 시행했던 것이다. 또한 위 기사를 통해 여름에 수전희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하루에 관가(觀稼)와 수전희를 모두 시행하였음을 의미한다.

㉕는 『용재총화』 권9에 실린 망원정에 대한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 수전희의 시행 양상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㉕의 내용에 따르면, 성종 대 이후로 수전희는 관가와 같은 날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조 대처럼 군사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왕이 민간의 상황을 시찰하고 더불어 군사를 훈련하는, 국가적 행사의 하나로 수전희가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종 대부터 수전희에 문신들이 동원되어 어명에 따라 왕이 제시한 주제로 시와 기(記)를 창작하였는데, 이는 수전희의 성격이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성종이 집권하였던

13) 성현, 『용재총화』 권9, “楊花渡北岸有喜雨亭, 是爲孝寧大君之第, 而後爲月山大君所有. 成宗每歲觀稼及聚稅艦習水戰之時, 親臨幸焉, 改名曰望遠亭. 御製詩數首, 命朝臣有文名者皆次之, 籠板環掛亭上. 自大君卒後, 成宗不復幸亭, 而屢幸濟川亭, 以亭狹隘, 命改營之.”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의 원문과 번역문을 인용하였음.

때는 세조 대와는 달리 국가가 내외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로, 이 때문에 수전회의 성격도 변화한 것이다. 수전회의 본래 목적은 군사 훈련에 있었으나, 수전회를 할 때 문신들에게 글을 짓게 하거나 수전회를 마친 뒤에 연회를 열었다는 것은 이전 시기의 수전회에 비해 유희적인 성격이 좀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망원정에 거둥하여 수전(水戰)을 관람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입시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대군의 별장(別墅)이니 가끔 와야겠다. 금년에는 우택(雨澤)이 두루 흠족하니 민사(民事)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하가 이것만으로 스스로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더욱 힘쓰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어가를 수행한 문신은 각각 시 한 수를 지어서 벽에 게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봄비가 지나치게 많이 내려 신 등은 을사년의 가뭄과 같을까 두려워했는데, 요즈음은 우택이 적당합니다. 신 등이 스스로 경축하면서 즉경을 글로 써서 판에 새겨 달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송영(宋瑛)에게 이르기를, “재상 한 사람이 기문(記文)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가를 수행한 문신은 추(秋)자 운을 써서 각기 사운율시(四韻律詩)를 짓도록 하라.” 하였다.

송영이 아뢰기를, “병조 판서 어세겸(魚世謙)으로 하여금 기문을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문신들이 모두 즉석에서 글을 지어 올렸는데, 모두 22인(人)이었다.

수전이 끝나자, 임금이 월산대군 이정(李婷)의 집에 들어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여 흠족하게 즐기고 여러 재상들에게 선온(宣醞)을 내려 주었다. 명하여 우상(右廂)의 여러 장수와 정난종(鄭蘭宗) 등을 국문하게 하였는데, 실율(失律)하였기 때문이었다. 월산 대군 이정에게 백저포(白苧布)·면주(綿紬)·쌀·콩을 내려 주었다.¹⁴⁾

14) 『성종실록』 권216, 성종 19년(1488) 5월 21일의 기사, “上幸望遠亭觀水戰. 尹弼商等入侍, 上曰: ‘此乃大君別墅, 亦時時臨幸. 今年雨澤周洽, 民事可喜. 然上下不

위는 『성종실록』 성종 19년(1488) 5월 21일의 기사로, 앞서서 보았던 『용재총화』의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성종은 수전회를 관람하던 중에 어가를 수행한 문신들에게 시를 한 수씩 짓도록 하였으며, 수전회를 마친 뒤에 월산대군의 집에서 연회를 열었다. 이처럼 성종은 군사를 훈련하는 방식은 이전 시기의 것을 수용하였으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전회를 관람하였다. 이처럼 수전회를 관람하는 방식이 변화한 이유는 앞서서 언급했듯이 성종 집권 이후에 오랜 시기 동안 국가가 내외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수전회는 실전에 대비하여 시행한 군사 훈련이 아닌, 왕과 수행한 대신들이 즐기는 국가적 행사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전회의 성격이 변화한 요인 중 하나로 그 시행 방식을 들 수 있다. 세조 이전의 수전회는 가상의 왜선을 격파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세조 이후의 수전회는 편을 나누어 모의 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세조 대 도입되었던 시행 방식은 훈련에 참여한 군사의 사기를 높이면서, 동시에 수전회를 이전보다 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관람자에게는 준비된 과녁을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편을 나누어서 모의 전투를 하는 방식이 더 흥미로웠을 것이다. 또한 수전회가 한강에서 열렸으므로, 관람자는 수전회와 함께 한강의 경물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전회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시행된 다른 군사 훈련에 비해 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성종 대 이후로 훈련보다는 유희로서의 성격이 더

可以此自懈，當益自勉勵。今日隨駕文臣，各製一詩揭壁何如？ 弼商等曰：‘今年春雨過多，臣等恐如乙巳之旱。近來雨澤適宜，臣等自慶，可宜卽景作詩懸板。’ 上謂都承旨宋瑛曰：‘宰相一人可作記，隨駕文臣押「秋」字韻，各製四韻律詩。’ 宋瑛啓曰：‘令兵曹判書魚世謙作記何如？’ 上曰：‘可。’ 文臣等皆卽席製進，摠二十二人也。水戰訖，上入御月山大君 婷第，置酒奏樂歡洽，賜宜醞于諸宰。命翰右廂諸將鄭蘭宗等，以失律也。賜月山大君 婷白苧布、綿紬、米、豆。”

강화되었다. 현존해 있는 자료로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조선 전기의 한양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국가적 행사를 관람하는 것이 유흥거리였음을 고려하면 당시 한양의 거주민들도 수전회를 관람하러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람의 특성상 구경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성종 대 이후로 수전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한양의 거주민들이 이를 관람하는 것 또한 당시 한양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상참(常參)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대사헌 김영정(金永貞)이 아뢰었다.

“신이 듣자옴건대, 장차 물싸움[水戰]을 한다 하는데, 한재가 바야흐로 대단하여 비록 비가 조금 왔지만 아직 흡족하지 못하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리상의 가짓수를 줄이며 두려워하고 반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싸움이 비록 열병(閱兵)과 같지마는 놀이에 가깝습니다. 또 길가의 벼들이 비를 맞아 조금 소생하였는데 거동하실 때에 반드시 밟아 손상시킬 것이니,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법왕굴(法王窟)의 중은 도성 아래서 나라의 금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목을 엮고 기와를 굽니다. 죄가 용서할 수 없으니 국문하소서.”¹⁵⁾

위는 『연산군일기』 연산군 8년(1502) 5월 21일 기사로, 당시 대사헌이었던 김영정이 수전회를 중지하도록 건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위 기사에서 김영정은 가뭄이 해소되지 않은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들어 수전회를 중지할 것을 청하면서, 수전회를 “놀이에 가깝다[近於戲事].”라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중종실록』 중종 21년(1526) 5월 7일 기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성종 대 이후의 수전회는 본래 목적인 군사

15) 『연산군일기』 권44, 연산군 8년(1502) 5월 21일 기사, “受朝參, 御經筵. 大司憲金永貞曰: ‘臣聞, 將試水戰. 旱災方熾, 雖小雨, 尙未洽足. 殿下當避殿, 減膳, 恐懼修省. 水戰雖似閱武, 近於戲事. 且路傍禾穀, 得雨小蘇, 而駕幸之時, 必致踏損, 請停之. 且法王窟僧在都城底, 不畏邦禁, 構材燔瓦, 罪不可赦, 請鞠之.’”

훈련보다 유희적인 측면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수전희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았다. 수전희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한강에서 시행하였던 군사 훈련으로, 수전희에 사용되었던 조선이 한강에 모이는 여름에 주로 열렸다. 수전희는 세조 대에 그 훈련 방식이 변화하면서 군사 훈련의 성격이 일시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성종~중종 시기에는 수전희를 관람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유희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수전희의 시행 목적이 변화한 이유는 성종 이후로 국정이 안정된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수전희를 시행하는 장소 및 방식의 특성상 구경거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란 이후에는 이러한 수전희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임란과 병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군사 훈련은 실효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3. 수전희 소재 한시의 특징

-수전희 시행 방법 묘사 및 태평성대 찬양

성종 대부터 왕이 수전희를 관람한 뒤에 호종신들에게 주제를 제시하여 글을 짓게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수전희를 소재로 한 시가 창작되었다. 『성종실록』, 『중종실록』 등에 어가를 수행한 문신들에게 수전희를 소재로 시를 짓게 하였다는 기록이 몇 차례 나온다. 또한 성종~중종 대에 수전희를 소재로 창작된 시 중, 현존해 있는 작품의 운자(韻字)가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서 언급된 것과 다른 작품이 존재한다. 이를 통해 당시 수전희를 관람하면서 어떻게 창작된 시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이육, 소세양, 김안로, 정유길 등이 창작한 몇 편의 시에 불과하다.¹⁶⁾ 이들 작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이 외에 성종이 수전희를 관람하면서 창작하였던 시 <今日以觀水戰 幸尊兄之華亭

작가	작품명
이육(1438~1498)	〈西江觀水戰戲〉(『靑坡集』 권1)
김안국(1478~1543)	〈應製詩 務農桑〉(『慕齋集』 권8)
	〈教民戰〉(『慕齋集』 권8)
김안로(1481~1537)	〈雨後江山寒韻 應製 甲午五月初六日, 幸漢江觀水戰, 出三題, 令扈從諸臣製進. 下二篇同〉(『希樂堂稿』 권1)
	〈親臨水戰 回韻五言 應製〉(『希樂堂稿』 권1)
	〈沙汀照月光韻 應製〉(『希樂堂稿』 권1)
신광한(1484~1555)	〈務農桑 應製二首〉(『企齋集』 권4)
	〈教民戰〉(『企齋集』 권4)
	〈洞庭秋月〉(『企齋集』 권4)
소세양(1486~1562)	〈洞庭秋月 應製 乙未, 中廟幸西湖, 水戰時命題〉(『陽谷集』 권1)
정사룡(1491~1570)	〈扈駕濟川亭, 觀水戰〉(『湖陰雜稿』 권4)
정유길(1515~1588)	〈觀水戰〉(『林塘遺稿』 上)
	〈教民戰〉(『林塘遺稿』 下)

위의 표는 수전회를 관람한 뒤에 어명으로 창작된 시 중 현존하는 작품을 정리한 것이며, 창작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작품이 있어 저자의 생몰년을 기준으로 작품을 배열하였다. 김안로가 창작한 작품 3편의 경우 제목에 “갑오년(1534) 5월 초 8일, 임금께서 한강에 행차하셔서 수전을 관람하셨는데, 어제(御題) 3개를 내시고 호종하는 여러 신하에게 지어 올리게 하셨다. 아래에 수록된 2편의 시 또한 이와 같다.[甲午五月初六日, 幸漢江觀水戰, 出三題, 令扈從諸臣製進. 下二篇同.]”라는 내용의 주석이 달려 있다. 이를 통해 김안로의 시 3편은 모두 같은 날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광한과 소세양의 〈동정추월(洞庭秋月)〉은 중종 30년(1535) 5월 15일에 창작된 것이며,¹⁷⁾ 김안국과 신광한, 정유길의 작품 중 ‘무농상(務農

予心甚有快焉 知所以心快 而不披中情 安知此趣之無盡也歟 聊將薄物用視寸忱 云 且錄之如左 兼以拙詩 上品紗一匹 照房良馬一匹 紗帖里一襲 木綿五十匹 胡椒十斗 二張浮油席二浮가 『열성어제』 권5에 수록되어 있다.

17) 『중종실록』 권79, 중종 33년(1535) 5월 15일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桑)’과 ‘교민전(教民戰)’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종 33년(1538) 5월 12일에 창작된 것이다.¹⁸⁾

수전희를 관람하는 현장에서 창작된 시는 어명으로 제시된 시제(詩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 중 수전희가 시행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전희가 시행되는 상황을 묘사한 작품을 통해 당시 수전희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파악하고, 당대 임금을 비롯하여 호종한 신하들이 수전희의 어떠한 면을 유희로 인식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위의 표에서 제시한 작품 중 한강의 경물을 묘사하는 내용의 시는 한강을 소재로 창작된 여타의 시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수전희 외의 주제로 창작된 시의 경우 수전희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민전(教民戰)’이라는 시제로 창작된 시의 경우, 대체로 태평성대에 군사 훈련을 하는 이유 및 왕의 치세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육, 김안로, 정사룡의 시를 중심으로 수전희 소재 한시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¹⁹⁾ 시기상 가장 먼저 창작된 시는 이육의 〈서강에서 수전희를 보다[西江觀水戰戲]〉(『靑坡集』 권1)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觀稼于西郊，仍駐于望遠亭，觀水戰。御題洞庭秋月五言律，令扈駕之臣製進。沈彥光、蘇世讓、崔世節、趙仁奎優等，命賜弓各一張。”

- 18) 『중종실록』 권87, 중종 33년(1538) 5월 12일 기사를 보면, 중종이 수전을 관람하고 중재(宗宰)와 호종한 문·무신에게 무농상(務農桑)이라는 어제로 칠언율시를, 교민전(教民戰)이라는 어제로 오언율시를 짓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上幸犬項壇上，觀水戰，御題《務農桑》七言律、《教民戰》五言律，勿論宗宰，凡文武扈駕之臣，並令製進，命三公考試。”) 중종이 무농상과 교민전을 어제로 낸 이유는 수전을 관람하고 돌아가는 길에 관가(觀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 19) 정유길의 〈觀水戰〉(『林塘遺稿』 上)은 임금의 은택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군이 외침 막는 것 훈련하니, 어찌 대신들 와서 태평성대를 즐기지 않으리. [要習龍驤防外侮，豈將星駕玩時康.]”라는 구절 외에는 수전희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西江之水淨如練	서강의 물은 맑기가 명주 같고
畫鷁破浪疾如電	대장선이 물결 헤치며 나가는 것이 마치 전광석화처럼 빠르구나.
萬卒齊呼不旋踵	만 명의 병사들 일제히 고함지르며 앞으로 나아가
奮矛免胄方酣戰	창 휘두르며 죽기 살기로 힘껏 싸우는데.
將軍右把青蛇劍	장군은 오른손에 청사검(靑蛇劍) 쥐고
左手指揮白羽扇	왼손에는 백우선(白羽扇) 흔들며 지휘하네.
號令明嚴士卒習	사졸들이 엄한 호령 따라 훈련하는데
金鱗耀日腰勁箭	햇살에 물이 금빛으로 반짝이고 허리엔 화살통 찼네.
前軍復用黃蓋策	선봉대가 다시금 황개의 책략을 쓰는데
水駛船飛風更便	바람에 물살이 빠르고 배는 나는 듯하더라.
鼓譟一合大江窄	북 소리에 함성 울리며 양군이 부딪히니 큰 강이 좁게 느껴지는데
俄頃降帆豎一片	어느새 항복하는 배에서 잠시 후에 돛 내리고 편(片) 하나 세워 놓았네.
咫尺已恐山河裂	지척 사이에 벌써 산하가 쪼개지는 듯
白日旌旗暗不見	대낮에 깃발이 휘날리는데 포연이 자욱하여 보이지 않네.
廟算真得萬全技	묘산은 참으로 만전의 술수를 얻었는가
勝敗分明在顧盼	승패는 분명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렸구나.
龍顏載喜日西飛	용안에 기쁨을 띠었는데 해는 서쪽으로 지고
千艘萬斛紛星散	천 척의 큰 배들 별처럼 나뉘어 돌아가네.
云是大平水戰戲	이를 태평시대 수전놀이라 하니
且以鍊士匪遊行	이야말로 훈련이지 유희가 아니라오
小臣幸忝侍從後	소신은 요행으로 시종신이 되어
縱目快觀終忘倦	눈을 크게 뜨고 구경하느라 끝내 지루한 줄 몰랐노라.

이육의 생몰년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위의 시는 성종 대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목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의

내용을 통해 이육이 어가를 수행하는 문신으로 수전회를 관람하였을 때 어명으로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시에는 당시 수전회에서 군사들이 모의 전투 하는 과정이 실감 나게 묘사되어 있다. 1구의 ‘서강의 물[西江之水]’을 통해 이육이 관람했던 수전회는 양화도 인근에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성종은 월산대군의 정자였던 망원정에서 종종 수전회를 관람하곤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육 또한 호종신으로 망원정에서 수전회를 관람하고, 왕명으로 위의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육은 마지막 4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1~18구)에서 한강에서 시행된 모의 전투의 방법 및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수전회에 동원된 배를 2개의 편으로 나누어 전투하는 방식으로 군사 훈련이 시행되었으며, 각 편은 대장선의 지휘에 따라 모의 전투를 치렀다. 모의 전투는 창과 화살, 포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한 편이 항복하면 수전회가 끝이 났다. 이육은 ‘만졸(萬卒)’, ‘천소(千艘)’, ‘만곡(萬斛)’ 등의 시어를 통해 당시 많은 수의 군사와 배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수전회를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시어를 통해 당시의 국력 및 군사력이 강했음을 표현하였다.

이육은 시의 마지막 4구절을 통해 당시 수전회의 성격과 상징성을 나타냈다. 그는 한강에서 시행되었던 군사 훈련을 ‘태평수전희(太平水戰戲)’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2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수전회는 국가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시행하는 군사 훈련이라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수전회를 시행하고 있는 창작 당시가 곧 태평 시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성종의 치세를 찬양하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이육은 19~20구에서 당시의 수군 훈련을 ‘수전희(水戰戲)’라고 지칭하지만, 이는 유흥[遊衍]이 아니라 군사 훈련[鍊士]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수전회의 본래 목적이 군사 훈련이라는 점을 의식하여 이러한 구절을 넣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수전에 ‘희(戲)’

를 붙인 점, 그리고 군사 훈련으로 수전회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당대에 수전회를 군사 훈련보다는 관람 놀이로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육은 “눈을 크게 뜨고 구경하느라 끝내 지루한 줄 몰랐노라. [縱目快觀終忘倦]”라는 감상평으로 시를 마무리하였는데, 이 구절을 통해 당시 수전회는 다른 군사 훈련에 비해 관람하는 재미가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상 유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忘危非遠算 위망이 멀리 있지 않다고 헤아려
 習艦翠華來 어가가 거둥하여 수군을 훈련하네.
 萬旅嚴貔虎 만 명의 군사들 비호처럼 엄중하고
 千櫓迅電雷 천 개의 배들 우레처럼 빠르네.
 角聲轟地動 호각 소리 땅을 울리는 듯하고
 旗色捲天回 깃발은 하늘에 가득하네.
 兒戲昆明戰 아이들 놀이 같은 곤명지에서의 수전은
 漢武帝作昆明池以習水戰 한 무제 때 곤명지를 만들어 수전을 연습하였다.
 如今不滿哈 지금에 비하면 조소 거리도 되지 않네.

위의 시는 김안로의 <친림수전 - 회운 오언으로 응제시를 짓다[親臨水戰 回韻五言 應製]> (『希樂堂稿』 권1)로, 중종 때 창작된 것이다.²⁰⁾ ‘친림수전(親臨水戰)’이라는 제목과 운자(韻字)는 중종이 제시한 것으로, 김안로는 시제에 맞춰 당시 중종이 관람한 수전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김안로

20) 『중종실록』 권77, 중종 29년(1534) 5월 6일 첫 번째 기사에 “상이 제천정에 행행하여 수전(水戰)을 관람하고 ‘우후강산(雨後江山)’이란 제목으로 칠언율시를 한(寒)자 운으로, ‘친림수전(親臨水戰)’이란 제목으로 오언율시를 회(灰)자 운으로, ‘정사조월(汀沙照月)’이란 제목으로 칠언율시를 양(陽)자 운으로 지을 것을 어서(御書)하여 거가(車駕)를 호종한 신하들에게 모두 지어 올리게 하였다.[上幸濟川亭, 觀水戰. 御書雨後江山七言律, 寒韻, 親臨水戰五言律, 灰韻, 汀沙照月七言律, 陽韻, 令屬駕諸臣皆製進.]”라고 나와 있다. 즉, 김안로의 시는 이때 창작된 것이다.

의 시를 살펴보면 1~6구에서는 수전희의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이육의 시와 마찬가지로 ‘만려(萬旅)’, ‘천장(千槓)’의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에 열린 수전희의 규모가 성대하였음을 나타냈다. 이 시에서는 군사들과 배가 움직이는 모습을 각각 비호와 우레에 비유하여 당시 수전희가 실제 전투처럼 시행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강에 가득 찬 깃발과 돌로 나뉜 군대들이 맞붙어서 싸우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김안로는 7~8구에서 수전희와 한 무제 때 곤명지에서 시행된 수군 훈련과 비교함으로써, 당시에 시행된 수전희의 규모가 한 무제 때보다 더 크고, 그 시행 방식 또한 실제 전투와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에서 곤명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수전이 한 무제 때 곤명지를 파서 군사를 훈련하였던 것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김안로는 수전희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성대한 규모와 시행 방식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김안로가 시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당시의 국력과 군사력이 강하다는 점을 나타낸 이유는, 이 시가 왕명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적 행사를 관람하고 왕명으로 시를 창작하였기 때문에 이육의 시와 마찬가지로 창작 당시의 국왕인 중종의 치세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한 것이다.

不數昆池鑿苑中	원림의 가운데 파서 곤명지 만들 계획 세우지 않고
徒勤遠略習艤幢	다만 원대한 책략에 힘써 큰 전함 다루는 법 익힌다네.
旌旗翳日戈船列	펼터이는 깃발 해 가리고 병선들 늘어서 있는데
鼓角傳圍月暈同	호각 울리자 죽 이어 에워싸는 모양이 달무리 같네.
擣穴未窮先制勝	상대편 공격 다 하기 전에 먼저 제압하여 승리 거두고
捷音纔報已收功	승전 소식 바로 전하니 이미 공을 세웠다네.
回鑾聳得都人觀	환궁 행렬 우뚝하여 도성 사람들 구경하는데
載纘先朝克詰戎	임금께선 선조의 업을 계승하여 군사를 잘 다스리신다네.

위에 제시한 작품은 정사룡의 <제천정에 호가하여 수전을 보다[扈駕濟川亭 觀水戰]>(『湖陰雜稿』 권4)로, 정사룡의 생몰년(1491~1570)을 고려하면 중종 대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사룡은 한 무제 때의 수전과 당대의 수전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1~2구를 구성하였다. 한 무제가 처음으로 고안한 수전은 한정된 공간에서 시행되었으나, 당대에 시행된 수전회는 한강에서 모의 전투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 무제 때의 수전과 당대의 수전을 비교함으로써, 창작 당시에는 실제 전투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고 수전회를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3~6구에서 당시에 관람한 수전회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3~4구에서는 수상에서 모의 전투를 시작하는 모습을, 5~6구에서는 모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편을 묘사하였다. 7구에서는 수전회 관람이 끝난 뒤에 임금(중종)이 환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이어서 세종 때 시작되었던 수전회를 계속해서 시행하는 중종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정사룡의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구에서는 수전회가 시행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7~8구에서는 중종의 치세를 찬양하는 내용을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성종~중종 대에 수전회를 소재로 창작된 시는 군사들이 모의 전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임금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작품을 통해 당시 수전회의 시행 방식과 모의 전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당시에 여러 척의 배가 편을 나누어 전투하여 승패를 겨루는 방식으로 수전회가 시행되었고, 국왕과 호종신들은 이러한 군사들의 모의 전투를 한강 변의 정자에서 관람하고, 이를 소재로 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전회는 시행 방식 및 장소의 특성상 여타의 군사 훈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희적인 성격이 강했다. 또한 국왕이 수전회를 관람한 뒤에 연회를 열고 호종신들에게 글을 짓게 하였다는 점에서, 수전회가 국왕과 대신들에게는 국가적 행사이면서도 유희의 일

중으로 인식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수전희를 소재로 창작한 작품에는 당시의 한양 거주민들이 수전희를 구경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한양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국가적 행사를 관람하는 것이 유흥거리였으며, 세종 때 명나라 사신인 예겸의 〈유한강기(遊漢江記)〉(『臥遊錄』)에는 사신과 접반사 일행이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길 때 사녀들이 이를 구경하였다는 내용²¹⁾이 나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전희가 임금과 관료 문인들만의 유희가 아닌, 한양 거주민들에게도 놀이문화의 일종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한양 놀이문화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전희를 소재로 창작된 한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4. 나오며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에 한강에서 시행되었던 수군 훈련인 수전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소재로 창작된 시를 분석하여 조선 전기 수전희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그 특성을 알아보았다. 수전희는 국왕이 주관하는 군사 훈련의 하나로, 왜구 침입에 대비하여 시행되었다. 국왕이 수군의 주둔지로 행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이 한강에 정박하는 시기를 기다려 수군을 훈련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상 수전희는 주로 여름에 시행되었다.

초기의 수전희는 가상의 적을 만들고 이를 격파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세조 이후에는 훈련에 참여하는 군사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모의 전투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수전희의 방식이 모의 전투로 바뀌면서 관람의 측면에서 흥미성이 높아졌으며, 수전희가 한강에서 열렸으므로 한강의

21) 예겸, 〈遊漢江記〉, 『臥遊錄』, “乃沿流而下, 兩腋蕩槳, 時時水濺面上. 士女奔走聚觀岸上者, 以千數.”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성종 대 이후로는 수전회를 관람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어가를 수행한 문·무신들에게 시문을 창작하게 하고, 수전회를 마친 뒤 연회를 열어 문·무신들을 포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성종 대 이후로 수전회는 군사 훈련보다 유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었다.

본고에서는 수전회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그 모습을 파악하고자 수전회를 소재로 창작된 시를 분석하였다. 수전회를 소재로 창작된 시는 대체로 수전회 때 행했던 모의 전투의 모습을 묘사하고, 국왕의 치세를 찬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수전회를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은 창작 배경, 즉 호종신들이 수전회를 관람한 뒤에 어명으로 제시된 시제에 맞춰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왕과 호종신들이 수전회를 관람한 뒤에 연회가 열렸으며, 이 연회에서 왕이 제시한 주제에 따라 시를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수전회가 임금과 호종신들에게는 하나의 유희 문화로 인식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전기의 한양 거주민들에게는 국가적 행사를 구경하는 것이 유희거리였다. 수전회가 주기적으로 한강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전회 관람 또한 당시 한양 거주민들의 유희거리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수전회를 소재로 창작된 시는, 당시 국왕과 관료 문인들을 비롯하여 한양 거주민들의 놀이 문화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 金安老, 『希樂堂稿』.
李陸, 『靑坡集』.
鄭士龍, 『湖陰雜稿』.
鄭惟吉, 『林塘遺稿』.

2. 단행본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2천년사 14, 조선시대 한성부의 역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1~381쪽.
_____, 『서울 2천년사 19, 조선시대 서울의 과학기술
과 예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4, 1~577쪽.
원창애, 『인정사정, 조선 군대 생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1~319쪽.
육군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5, 조선전기Ⅰ』, 경인문화사, 2012, 1~548쪽.
_____, 『한국군사사 6, 조선전기Ⅱ』, 경인문화사, 2012, 1~477쪽.

3. 연구 논저

- 김용호, 「朝鮮初期 京軍 再編과 ‘首都防衛」, 『서울학연구』 2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4, 93~12쪽1.
나승학, 「임진왜란 전후 조선 수군의 군사체제 비교 연구」, 『군사』 9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143~174쪽.
오종록, 「조선 초엽 漢陽定都 과정과 수도 방위」, 『한국사연구』 127, 한국사연
구회, 2004, 211~242쪽.
윤훈표,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군사』 81, 국방부 군
사편찬연구소, 2011, 75~113쪽.
허대영,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와 병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
290쪽.

4. WEB DB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 in cultural meaning of Sujeon(水戰) and
the aspect of Chinese poetry as a material for Sujeonhee(水戰戲)
in the Early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naval training event in Hanyang

Kang, Soojin

This manuscript tries to understand Sujeon(水戰)'s implementation methods and changes and do aspects of Hanyang cultur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y analyzing poems created with it based on this. Sujeon was implemented against invasion by Japanese raiders as one of military disciplines supervised by kings. Because the kings could not visit posts of the naval forces, they trained them by waiting for the periods that vessels (漕船) are at the berths of the Han River and accor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Sujeon was usually implemented in summer.

Initial Sujeon was implemented in the manner of making and defeating imaginary enemies. However, after Sejo of Joseon, it was changed to the way of simulated combats. Sujeon's playfulness was higher than other military disciplines' in that it is held in the Han River, and the fate of battles is decided through simulated combats according to its implementation method's characteristics. And after the reign of Seongjong of Joseon, the kings made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who escorted royal carriages write compositions by holding a banquet after finishing Sujeon and awarded prizes by grading them. It can be found that Sujeon's playful characteristics are more gradually strengthened than the military disciplines since the reign of Seongjeong of Joseon. The manuscript tried to collect and analyze various records of Sujeonje and poems created with it by taking note of its characteristics and clarify aspects of Seoul's play cultur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ased on this.

For works created with Sujeon in common, poems created at that time generally describe simulated battles taken in Sujeon and consist of contents to praise the reigns of the kings who then seized power. It's because guards and lieges created with the titles of poems presented by the kings. Considering the point that these works were created in the banquets held after finishing Sujeon, the kings and guards and lieges can be found to recognize it as a thing to watch, that is, playfulness. And for Hanyang resident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atching national events was entertainment. And Sujeon was one of national events which were periodically held. Therefore, the value of the poems created with Sujeon can be found in that aspects of play cultures of the Hanyang residents including the kings and bureaucrat writers can be understood.

Key Words

Sujeonhee (水戰戲), The early Joseon Dynasty, Seoul culture, Military disciplines, Sea battle (水戰)

논문투고일: 2023.07.25.

심사완료일: 2023.08.10.

게재확정일: 2023.08.11.